

사무엘상 23. 놉과 가드로 도망한 다윗 (삼상 21 장 1-15 절)

들어가기

다윗은 자신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준 요나단을 통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어쩔 수없이 요나단과 마지막으로 눈물의 작별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사울의 궁전을 떠나 정처 없이 도망 다니는 나그네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고, 다윗 자신이 기록한 시편의 여러 고백들을 통해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연단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는 21 장에서 우리는 요나단과 작별한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 놉 땅으로 도망하여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아 기력을 회복하는 장면과 거기서 다시 블레셋 가드 땅으로 도망한 다윗이 가드의 통치자 아기스를 두려워하여 미친 사람처럼 행세하며 그곳을 빠져 나오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1. 요나단과 작별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놉으로 도망하였습니다. (1-6 절)

1) 당시 ‘놉’은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이 거주하던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 ‘놉’(Nob)이란 이름의 뜻은 '작은 산', '언덕', '산당'이란 뜻.

✧ 위치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당시 수도였던 '기브아'에서는 동남쪽으로 약 4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추정. (느 11:32; 사 10:32).

✧ 참고: 일찍이 블레셋의 공격으로 인해 실로의 성막이 파괴된 이후(4:10, 11)부터 아마도 여호와의 성막은 제사장의 성읍인(22:19) 이곳 '놉'으로 옮겨졌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

■ 그럼, 왜 다윗은 요나단과 헤어지자마자 이 놉으로 도망갔을까?

✧ 아마도 앞으로 자신의 도피생활과 관련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 참고: 22 장, 사울의 신하 도엑의 보고를 보면,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삼상 22:10)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에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15)' 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한 다윗은, 처음 사울의 위협을 받았을 때도 라마에 있는 선지자 사무엘을 찾았고(19:18), 이번에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결단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도, 놉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위험한 일을 만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는 경건한 성도들이 됩시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은 갑작스럽게 자신을 찾아온 다윗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 그는 ‘떨며, 다윗을 영접한 뒤, 어떻게 함께하는 사람 하나 없이 혼자 왔냐?’ 고 물었음.

✧ 참고: 제사장 ‘아히멜렉’은 14 장에 등장하는 제사장 ‘아히야’와 동일시 되는 사울 시대의 대제사장으로, ‘아히둡’의 아들이며, ‘비느하스’의 손자이고, ‘엘리’ 대제사장의 증손.

■ 그럼, 왜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을 보자마자 두려워 떨었을까?

✧ 두 가지 견해

① 사울의 포악한 성품을 익히 알고 있던 아히멜렉이 혹시 다윗이 사울의 명령을 받아 자신을 해하러 온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해서 두려워 떨었을 것. (Keil, Lange).

(예: 사무엘의 갑작스런 방문에 두려워했던 베들레헴의 장로들의 경우. (삼상 16:4))

② 이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을 들어 알고 있던 아히멜렉이 갑작스럽게 따르는 사람 하나 없이 빈손으로 기진맥진하여 자신을 찾아온 다윗을 보고, 분명히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기 때문에 떨었을 것이란 견해.

3) 그런데, 이때 다윗은 자신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은 감춘 채, 마치 사울의 특명을 받아서 온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무엇이든 있는 대로 양식을 달라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 그럼, 이런 다윗의 속임수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 개인적인 견해 (목사)

①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한 말은 분명한 거짓말이었기에 잘못된 것!

- 특히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일부러 하는 거짓말들은 분명히 더 나쁜 것!

② 그런데, 지금 다윗의 경우는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거짓말이라기 보다는 어쩔 수없이 자신의 도피가 알려질까 염려하여 갑작스럽게 둘러댄 연약한 거짓말이 아닐까?

- 특히 다윗의 상황을 한번 잘 상상해 보면, 아마 제대로 된 음식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것!

③ 곧 그가 거짓말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없이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다고 우리는 긍휼히 여겨주어야 하지 않을까? 나아가 긍휼하심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도 이런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았을까?

4) 떡을 달라 요청하는 다윗에게 아히멜렉은 ‘보통 떡’은 없지만, ‘거룩한 떡’은 있다고 말한 뒤, 그 떡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3-6 절)

■ 참고 : ‘거룩한 떡’

- ✧ ‘보통 떡’ = 사람들이 식용으로 먹는 일반적인 떡
- ✧ ‘거룩한 떡’ = 안식일에서부터 돌아오는 안식일까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제단 즉 성소의 떡 상에 올려졌던 '진설병'을 가리킴.
- ✧ 율법에서는 이 ‘진설병’은 특별히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고운 밀가루로만 만들어야 했고, 총 12 개로 이스라엘 12 지파를 상징하며, 일주일에 한번씩 반드시 새것으로 교체해야만 함. 그리고 교체된 떡은 오직 제사장만이 성소의 거룩한 장소에서 먹도록 규정되었음.

■ 그럼,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런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다윗에게 이 ‘거룩한 떡’을 준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 개인적인 견해 (목사)

- 이를 생각하기 위해 먼저 주목해야 할 것! -> 떡을 주기 전 아히멜렉의 내건 조건!
=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않았다면?’ -> 곧 성결하다면 주겠다는 것’
- ✧ 곧 하나님께서 진설병에 대하여 율법을 규정해 주신 근본 정신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
- 결코 아론의 후손들 곧 제사장들에게 하나의 특혜를 주시기 위함은 분명 아니었을 것!
- 곧 이스라엘 12 지파의 구별됨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앞에 놓여졌던 거룩한 떡이 함부로 부정되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사장들만이 먹게 하지 않았을까?
- ✧ 그렇다면, 비록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그 일행에게 거룩한 떡을 준 것은 형식적으론 혹은 의식적으론 율법을 어긴 것일지는 몰라도, 그가 제자 저들의 성결함을 확인한 후에 굶주린 이들을 불쌍하게 여기어 그 떡을 나누어 준 것은 최소한 율법의 근본 정신은 그대로 유지하고 지켰던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
- ✧ 또한 22 장 10 절을 근거해 볼 때, 아히멜렉을 이 거룩한 떡과 관련해서도 분명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았을까? 추측!

물론 우리가 살면서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 따르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먼저,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바로 알고, 항상 사랑과 긍휼이 법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나친 율법주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원 뜻!, 곧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잊어버리게 할 때가 참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고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었다는 이유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오늘 본문의 아히멜렉과 다윗의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항상 그 율법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언제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며 용서하는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2. 제사장 아히멜렉은 무기를 찾는 다윗에게 골리앗의 검을 주었습니다. (7-9 절)

1)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왔을 때, 사울의 신하 도엑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7 절)

- ① ‘도엑’ (Doeg) 이란 이름의 뜻은, '불안' 이란 뜻!
- ② 그는 '에돔 사람' 이었음 - ‘에돔 사람’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을 말함.
- ③ 그는 ‘사울의 목자장’ 이었음
 - 당시 가축은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다는 점에서, '도엑'이 사울의 목자장이라는 요직을 맡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사울로부터 대단한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추측!
- ④ 참고: 최근 몇몇 성경학자들은 사해사본(Dead Sea Scrolls)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여기 '목자'로 번역된 단어가 잘못 번역 되었다고 주장! (Driver, Graetz, Klein, etc.)
 - 그래서 ‘사울의 목자장’이 아니라 '달리는 자'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
 - 곧 도엑은 사울의 병거보다 앞서 달려가는 왕의 시위대로 보아야 하고, 22 장 17 절에서 그가 실제로 사울의 시위대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과 가축을 쳐 죽이는 직접적인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뒷받침 한다고 해석함.
- ⑤ 아무튼 놈의 제사장들과 주민들은 이 사울의 신하 ‘도엑’의 고발로 인해 나중에 사울에게 무차별적인 죽임을 당하게 되었음!
- ⑥ 참고로 다윗은 이 도엑으로 인한 사울의 악행을 시편 52 편에서 시로 기록하였음!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 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시편 52 편 1-3 절)

2)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왕의 명령을 급히 수행하려다 무기를 가지고 오지 못했다고 또 거짓말을 하며 무기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8 절)

- ✧ 아마도 사울의 신하였던 ‘도엑’을 보고, 순간 두려움을 느껴서가 아니었을까? 추측.
- ✧ 결국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연약해졌을 때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었다는 깨달으며, 우리도 항상 자만하지 말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어느 때에도 믿음의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해 주시길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3)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지금 자신에게 골리앗의 칼이 있다고 알려주었고, 다윗은 이를 좋게 여기며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9 절)

■ 주목 :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 ✧ 아마도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그 날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 ✧ 곧 골리앗의 칼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좋게 여긴 것은 그 칼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능력을 기억하고, 더욱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닐까?

진정한 믿음의 성도는 지금까지 내 삶을 지키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 삶을 천국까지 이끄시며 승리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늘 찬송하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3. 제사장들의 성읍인 놉으로 피신했던 다윗은 그곳에서 사울의 신하 ‘도엑’을 보고, 다시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블레셋의 ‘가드’로 도망하셨습니다. (10-15 절)

1) 당시 ‘가드’는 ‘아기스’가 통치하고 있었고, 그의 신하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라 칭하며 다윗이 가드로 피난 온 것을 알렸습니다.

☆ 가드는 블레셋의 중요한 5 성읍 중 하나 - 놉에서 남서쪽으로 약 37km 떨어진 곳.

■ 그럼, 다윗은 왜 놉에서 37 km 나 떨어진 이곳 '가드'로 도망갔을까?

- ① '가드'는 블레셋 국경의 첫 번째 도시였고, 놉에서부터도 가장 가까운 이방도시였기 때문.
+ 블레셋은 사울이 가장 경계하며 쉽게 쫓지 못하는 족속!
- ② 또한 어쩌면 당시 블레셋에게 사울은 최대의 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사울의 적인 다윗 자신도 저들이 쉽게 받아줄 수 있지 않겠나? 라고 내심 생각지 않았을까?
- ③ 비록 자신이 가드 출신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였지만, 그것도 최소 3-4 년전의 일이기에 아마도 저들이 자신을 잘 알아보지 못할 것으로 판단. (Smith)

2) 그런데, 이런 다윗의 기대와는 달리 가드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를 알아보고 또 아기스 왕에게 알리자, 다윗은 저들을 심히 두려워하여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였습니다. (13-15 절)

■ 두려움 때문에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 아무리 믿음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순간 찾아오는 공포심으로 인해 두려워할 수도 있고, 또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

☆ 그런데 이 두려움은 우리들의 마음에 온갖 근심과 걱정을 가져오게 합니다!

- 잠언 29 장 2 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 무에 걸리느니라’
- 본문의 다윗도 두려움 때문에 또 다른 속임수를 생각해 냈음 - ‘미치광이 행세’
- 결국 이 일로 원수들에게 굴욕적인 멸시를 당하며 쫓겨나게 되었음!
- 참고로 다윗은 이때의 마음을 시편 34 편을 통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를 절망과 낙심의 길로 인도하는 지름길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격려와 도우심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두려움의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 오늘 내용을 통해 새로 묵상했거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 중보기도 나눔.